

[**종합·해설**]

■ 버지니아 공대 총기참사 정부 표정

盧대통령 육성 조문 메시지

美國내 분위기 총기소지 논란쪽 흘러... 일단 안도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참사 이틀째인 18일 정부 당국자들은 당초 우려보다 미국내 분위기가 총기소지 논란으로 흐르는 상황에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국내에서 ‘자책감’이나 지나치게 ‘범인의 혈통’을 강조하는 행태를 보이려는데 대해 ‘지혜로운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도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조문서한을 보내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구두 조문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미국민의 슬픔을 위로하고 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심윤호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책반이 비상근무를 하며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미국내 주요 공관과 긴밀히 연락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정부 당국자는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해나가면서 교민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럴 때는 모두가 자신의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사건이 불행한 일이지만 반세계가 넘는 혈맹적 동맹인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인의 신원이 처음 드러날 때만 해도 일부 미국 언론에서 ‘살인자는 한국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보도해 미국내 반한감정이 일 것으로 걱정했으나

다민족·다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인들이 ‘높은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미국내 거주하는 한국계 교민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벌어진 ‘특별 사례’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북미국 관계자는 “미국내에서 차지하는 한국계의 위상은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면서 “그동안 한국계 교민들이 미국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미지가 좋은 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사건은 예외적인 일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언론들도 가급적 ‘한국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총기소지 논란이나 성숙한 미국인들의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사건의 파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당국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군사·안보차원에서 경제분야로 확산되는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된 만큼 ‘한차례의 비극’이 영향을 미칠 소지는 적다는게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자들은 앞으로도 가급적 사건의 파장이 한국인 전체에 대한 감정악화나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으로 확산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 줄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범여권 대권주자 행보 분주

한명숙·정동영, 토론회서 ‘범여권 통합’ 나서 정운찬·문국현, 특강 등 통해 정치권 인사 접촉

범여권 통합 움직임이 각계각진 식으로 속도를 내면서 예비 대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파별로 제시하는 통합의 로드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데가 하면, 시민사회세력 등 정치권 외곽의 움직임도 바빠 들어갔다. 그동안 ‘때’를 기다렸던 이들 주자군도 일발장전의 태세를 갖추고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에 ‘올인’해온 김근태(GT) 전 의장은 18일 광역·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광주로 내려가 선거지원에 나선다는 한쪽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한미 FTA, 범여권 통합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전남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강에 이어 23일 한양대, 27일 대전 한밭도 포럼, 5월 1일 한신대 등 특강 일정도 줄줄이 잡아놓고 있다. 특히 당내 GT계로 분류되는 민병연과 천정배 의원이 속해 있는 민생정치모임이 신당 논의에 보조를 맞추기로 함에 따라 ‘김-천’ 간 본격적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 여성포럼’ 주관으로 열리는 총리 퇴임 기념식에서

참석, 향후 구상을 피력하는 등 우리 당 여성의원 만찬, 우리당 여성정책 토론회 참석에 이어 ‘여풍(女風) 물이’를 이어간다.

대통합신당 추진작업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던 정동영 전 의장도 범여권의 결집을 위한 ‘통합대장정’을 화두로 내걸고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과의 접촉에 시동을 걸고 있다.

18일로 단식 29일째를 맞은 천 의원은 급주 중에는 단식을 풀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단식 해제 후 FTA 반대 행보를 계속하는 한편 정치권과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하는 사회적 대연대 작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혁규 의원은 17일 목포 상공회의소, 18일 창원대 초청 특강에 나서는 등 각종 강연을 통해 서남해안권 경제발전 프로젝트,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등 정책구상을 적극 내비치고 있다.

정치권 외곽인사로 영일 0순위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총장은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촉을 한층 강화하면서 최종 결단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최근 정대철 우리 당 고문을 만났는데 이어 평소 친분이 있었던 유인태 김종률 의원 등과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국현 유한김빌리 사장도 공식적으로는 정치 참여 자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난 11일 광주 조선대 경영대학원 특강을 시작으로 강연 행보를 본격화하며 활동빈도를 넓혀가고 있다.

/연희뉴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총기 희생자 추모 묵념하는 정치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원희룡 의원, 김근태 의원,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이상득 국회부의장, 김성곤 의원, 김덕룡 의원(오른쪽부터)이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07 대선, 재외국민 참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한 “허위사실 유포 대선당선 무효화” 법개정 추진

정치권, “독재시대 발상” 비판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마련한 정치관계법 제·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18일 발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로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당선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후보간 토론 방송을 금지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대선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계있는 단어를 인기 검색어에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선거기간 쏫불 집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

표했다.

이에 대해 각정당 및 정파는 “집권 육에 이성을 잃은 한나라당”, “군사 독재정권 시대의 발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후보의 도덕성 등 모든 문제를 검증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지, 잘못을 묻고 감추기 위한 개정을 하려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추진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이성을 잃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입과 눈을 틀어막기에 정신이 없다”며 “주권자는 한나라당 당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기훈 부대변인은 “인터넷 검색어 제한, 후보단일화 토론방송 금지 등을 통해 한나라당 군부독재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형질을 드러냈다”며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김형타 대변인은 논평에서 “쏫불집회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권리까지 무시하는 금권정치, 차별적 정당다운 발상”이라며 “후보 단일화 토론방송 금지 등은 이성을 잃고 시대에 역행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홍준표 “한 혁신해야 대선 승리”

집권 7가지 대책 제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8일 “한나라당과 한국 보수세력 전체가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올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면서 ‘보수혁신론’을 주장했다.

3선의 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패로부터 자유롭기 ▲특권인식 버리기 ▲무사차떼기 정당다운 발상 ▲후보 단일화 ▲대미 자주노선 강화 ▲분배와 평등 문제 중시 ▲기득권 인식 버리기 등 7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선후보 경선자금의 모금,

집행과정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이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을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 구성원 중 상당수가 대북강경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어서 진정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당 지도부가 좀 더 사례공개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대선 등 각종 선거에 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재산, 병역, 세금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당은 이 점을 검토해 대선후보 검증에 철저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비방 ‘괴CD’ 나돌아

차츰 “좌시 않겠다” 추측 “아는 바 없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비방하는 괴CD가 국회 의원회관 등에 나돌아 캠프측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8일 당 소속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주 후반부터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CD가 의원회관 주변에 유포되고 있다는 것.

이 CD의 발신처는 ‘김근태조치패자가추협의회’로 돼 있으며,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으나 해당 전화

번호는 일반 가정집인 것으로 확인돼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측이 지적한 공보특별반 “함마디로 잔인하고도 구태스러운 흑색선전”이라며 “이번 CD 유포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 군데 밖에 의심할 데가 없다”고 말해 배후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캠프 관계자는 “우리는 CD를 본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면학분위기 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전/의경 폐지확정 |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 지금이 기회! | 개강 5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후 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희소식 수료 **한빛고시**

기장주부 | 실업자 | 지방청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 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무관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탁월한 합격 시스템
● 출결관리 ● 학습 성취도에 따른 개별 분석지도
● 저습실, 사물함 무료 사용

합격률 1위 **A+ 현대고시학원** 236-2467~8 (동부경찰서 옆)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 “第一” 합격 “最多”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7.9 공무원 완전 대비

기술직렬 ... 행정직렬 ... 공안직렬

시험 안내
서울 지방직: 7월 8일 시행 1723명 | 전남: 6월 23일 161명
전북 지방직: 제2회 9급 행정, 사회복지, 사서: 9월 8일 131명 공채
*전남지방 7-9급 행정직 후보기 시험 시행 예정

후반기 각 시·도별 9급 교육행정직 9월~11월 시행, 합격응이

개강: 5월 1일 주·야(휴일)반 모집 *장기미반: 주간 2개월 야간 3개월 완성 *핵심이론+문제풀이반 4주완성반

고시명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 222-4560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 직업능력훈련기관 |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5월 1일 첫진도 개강

고용보통채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원점점 옆 광주은행 4F)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합격= 한빛에 있다! www.hanbitgosi.co.kr

9급 공무원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법원직, 경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농림직, 전신직, 보건직, 출입국관리직, 기술직

이론반 (2개월 완성) | 서울시 문제풀이 (1개월 완성)

총합격 (420~620) | 승합증 9급 국가직 무등특강

한빛공무원학원 *경기도(4월 28일) *수송차량 예약접수 (·원수기:3월12일~4월 25일·원복차:2월) *서울시(7월 8일) 시험지향 예약접수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234-0234

개강 5월 1일 (휴/약수반 매일 첫진도 개강)